

강기정 시장 “통합돌봄, 광주정신·포용도시 상징”

광저우 세계시장포럼 연설
관계돌봄 실현에 거점 역할
민주 도시 광주 공동체 강조
“돌봄민주주의로 미래 완성”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지정책을 훨씬 넘어서 민주주의의 완성과 광주정신을 실현하는 대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난 9일 중국 광저우 월수국 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세계시장포럼’에 참석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광주만의 돌봄정책 도입 배경과 5·18민주화운동에 뿌리를 둔 민주도시 광주의 포용성을 알렸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혁신성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도시안전망과 공동체 구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역설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를 비롯한 전 세계 도시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와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중국 광저우시 월수국 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세계시장포럼’에 참석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하기 위한 대안은 돌봄에 있고,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인 만큼 정부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배경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광주정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도시”라며 “1980년 서로를 돌보는 연대의 정신으로 도시를 지킨 특별한 역사가 있다. 이러한 광주정신에서 오늘날 확장된 것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일상에서 인간으로, 시민으로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지 못하

는 이웃을 돌보는 도시가 되고자 한다”며 “질병, 노쇠 등으로 발언·투표·참여할 권리가 박탈된 이들은 발언하고, 투표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지정책을 훨씬 넘어서 민주주의의 완성과 광주정신을 실현하는 대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약취가 너무 심해 이웃이 돌봄을 신청한 80살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강 시장은 “고립 생활로 집안은 쓰레기가 가득 차있고, 썩은 음식을 먹으며 연명한 어르신을 구조한 후 씻기고, 식사를 지원하며 영양실조를 막았다”며 “이후 병원으로 모셔가 치매 판정을 받았고 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국가돌봄으로 연계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식이 끊긴 아들과 다시 연락이 닿은 것이다. 단순히 서비스 몇 가지를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웃 간에 끊어진 공동체를 연결하는 관계돌봄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고,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

고, 끊어진 공동체를 연결하는 관계돌봄 실현에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에만 8000명의 시민이 도움을 받았고 실제 이용자 조사결과 서비스 이전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9.2점이 높아졌고, 우울감은 9.8점이나 떨어졌으며 힘들 때 사회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신뢰감은 무려 16.6점이나 상승했다.

강 시장은 “서로를 돌보는 돌봄관계를 통해서 잃어버린 공동체를 회복하고 관계를 완성시키기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광주의 혁신적인 시도를 전 세계 도시와 나누고 발전시켜가겠다. 광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돌봄에서 시작되고 통합돌봄을 통해서 확대되며 돌봄민주주의로 완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최일선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368명의 사례관리담당 공무원, 710명의 민간기관 종사자, 재정과 조직을 신설을 위해 결단해준 5개 구청장, 조례 제정 등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주시의회, 통합돌봄 모형설계에 참여한 전담팀(TF) 모두의 덕분이다”고 전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전남 가구당 사업소득 전국 1위... 가구소득은 11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분석

전남도가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사업소득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 지역 가구소득은 6093만원으로 중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은 매년 가계의 소득수준과 그 변화추이를 분석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 파악을 목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전국 2만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가구소득은 전년(5739만원)보다 354만원(6.2%) 늘어난 6093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전국 11위를 유지했다.

전국 평균은 6762만원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한 가운데 전남 증가율보다 평균보다 0.8%포인트 낮았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남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전국

(76.5%)에서 가장 낮은 ‘60.1%로 가구당 근로소득도 가장 낮았다.

반면 자영업자나 농가 등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가구당 사업소득은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20.1%) 평균보다 높은 31.2%에 농가 비중도 전국(4.7%)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18.9%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전남의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중은 25.2%(전국 18.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많아 개인의 가계에 소득의 형태로 들어오는 수입을 뜻하는 ‘가구당 이전소득’ 역시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전남의 가구 자산은 전년(3억3151만원)보다 739만원(2.2%) 늘어난 3억3891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보다 1단계 높은 16위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전년보다 6.7%(전국 3.4%) 증가한 저축액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황지 기자

“기아 광주공장 이전해 미래형 스마트공장으로”

미래차 국가산단 활성화 토론회

기아차 광주공장을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옮겨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시됐다.

미래차 국가산단은 광산구삼거리동·덕림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원 407만㎡ 부지에 조성된 빛그린산단 인근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로 지어지는 신규 산단이다.

지난 8일 더광주연구원과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이 공동 주최한 ‘미래차 국가산단 활성화와 기아차 이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아차 광주공장이 내연차 중심 노후공장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친환경,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 근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기아차 공장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장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제조원가 경쟁력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광주공장 주변의 대규모 상업, 주거단지 입지여건의 변화도 기아차 이전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위원 더광주연구원 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지난 3월 광주가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만큼, 기아차 공장의 미래차 국가산단 이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수기 의원은 “미래차 국가산단과 완성차 공장의 결합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광주 자동차산업에 가장 큰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사랑의 선물주머니 광주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들과 자원봉사자 등이 지난 8일 북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대강당에서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할 김과 비누 등이 담긴 사랑의 선물 주머니를 제작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전국 첫 연중무휴 운영 주목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연중무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올해의 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제3차 광주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시민이체

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0명(우수사례 10개)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전국 최초 연중무휴 24시까지 진료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최준호 감염병관리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전국 최초 연중무휴 24시까지 진료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은 시민이 안심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적

자가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성과와 높은 시민 체감도를 인정받았다. 최우수 사례는 내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해 타시도 우수사례와 겨루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적자인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실적가산가점, 포상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속도 낸다

총 사업비 5643억원 규모 복합관광단지 등 3개 사업

전남도가 추진중인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조기 폐광한 화순광업소 지역의

경제진흥개발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도 예타 대상에 함께 포함했다.

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규모는 5643억원 규모다.

조사 대상은 골프장·리조트·수목원 등이 포함된 ‘복합관광단지’를 비롯해 의료·식품 등 ‘특화농공단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예타 조사 운용 지침에 따라 약 9개월 이상의 타당성 조사 기간 동안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사업 설계의 적정성, 비용 대비 효과성(B·C) 분석 등을 거치게 된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예타 조사 대상에 화순탄광 내 청정메탄을 산업단지 조성, 역사박물관, 추모 공원 조성 사업을 포함 시킬 예정이다.

또 강도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한 강도 유지 관리비도 24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국회와 관련 부처에 집중 건의하고 있다. **최황지 기자**